

## 기획특집 콜로키엄 토론<sup>1)</sup>

개최일:	2015년 5월 4일
발표자:	이경목(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민영(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도정(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지정토론:	지은숙(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사회:	정헌목(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인용된) 토론참여자:	강재성(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김태경(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김희경(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심일종(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길호(서울대 인류학과 박사과정) 이현정(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홍철기(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 1. 지정토론

지은숙: 처음에 이경목씨 발표를 들었을 때 세월호를 참사라고 부를 것인가, 사고라고 부를 것인가, 사건이라고 부를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발표 세 가지가 그 긴장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도정씨 발표 같은 경우 세월호를 사고로 보고, 이민영씨의 경우는 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경목씨 같은 경우 이 문제를 왜 사건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월호 관련 논의의 프레임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각 세 분의 발표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

1) 2015년 5월 4일,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에서는 『Anthro彼我』 창간호 기획특집인 “그 날 이후: 세월호라는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당시 미국에 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발표를 할 수 없었던 박형진을 제외한 3명의 기획특집 투고자들이 각자의 원고를 발표했다. 여기 실은 내용은 당일 있었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날 발표된 내용과 앞에 실린 최종 원고의 내용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투고자들이 콜로키엄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원고를 수정하였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註)

먼저 이도정씨의 경우, 세월호를 사고로 보는 프레임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때문에 문제가 깊이 분석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고라는 것으로 바라 볼 때, 사고는 극복해야 하는 것,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복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잇는다거나 무관심하다 해서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사고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 경우 진도 사람들이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고라는 프레임 안에 담기지 않는, 밖으로 튀어나온 문장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글 전체를 보고 처음부터 깜짝 놀랐던 게, ‘슬픔의 섬 진도’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에는 슬픔의 섬 진도, 애도의 섬 진도라는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관광수입이라든가 하는 게 사고 당시에는 분명히 줄었겠죠.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그런 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진도 바닷길이 열린다라는 행사가 있는데 예년에는 60만 명 이상이 왔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가 왔대요. 관광지로 금방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슬픔의 섬 진도, 애도의 섬 진도라는 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오히려 팽목항이라는 곳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디 붙어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팽목항이라는 장소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그게 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나 완도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진도와 팽목항이 사실은 분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팽목항에 대해 진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우리 진도가 사고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팽목항이라는 장소성에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뒤에 가서는 다소 감당이 안 되는 측면이 있던 거 같아요.

이도정씨 글은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구성이 좀 평면적이에요. 다양한 화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토론자의 입장에서 가장 재밌었다 하는 지점들을 짚어보면, 마지막에 씻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씻김굿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2014년 6월 28일에 이미 씻김굿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일종의 무대에서 펼쳐졌던 관계 공연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씻김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런 무대에서 하는 공연은 제대로 된 씻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씻김굿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더 부각시키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민영씨 원고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많았고, 이 글을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어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코멘트를 하자면, 전체 구성에서 봤을 때 마지막에 2014년에 나온 기존 연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나온 이 선행연구를 글에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기존 연구에서 관광지화

라는 프레임에 갖고 얘기했을 때 그게 왜 부족하고 못 마땅한가에 대해 먼저 짚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야 하는 게 제일 뒤에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하실 때는 그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지화라는 개념에 갇히지 않는 다크 투어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다크 투어리즘의 정확한 핵심이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제가 대충 정리해 본 바에 따르면 기존의 논자들은 국가 주도의 복원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화처럼 일종의 부정적 유산이나 사건을 가지고 하는 걸 다크 투어리즘이라 생각해 왔다면, 발표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민간 주도의 과제 해결과 성찰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관광, 이 정도인 거 같아요. 다크 투어리즘을 본인이 이렇게 새로 정의한다는 것에 대해 본인이 좀 더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전체 논의가 정돈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견 제언인데, 다크 투어리즘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관광인류학에서 기존에 호스트와 게스트, 그 다음에 현지인과 방문객의 구도를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크 투어리즘에서는 구경하러 온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뭔가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서 당사자가 모두의 문제로 되는 과정으로 관광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관광인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저자의 관점에 대해 개념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 부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이슈를 좀 더 자세히 파고들었으면 싶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이니 그렇겠지만, 안산과 서울, 팽목항 이렇게 세 군데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모아서 관광지화하자는 프레임이 왜 부족한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견 논의 전체가 확 모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만, 만약 세월호가 인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논의에서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지화의 움직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프레임에서 이 방향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세우고, 그걸 갖고 세월호 인양과 연결해서 세월호 인양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내용이 뒤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선행연구에 대한 리뷰 부분이 너무 길고, 막상 뒤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짧게 끝나서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목 씨 글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앞의 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온 세월호 관련 저작에서 느꼈던 답답함이라는 걸 잘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세월호 문제를 사고라고 보면 그냥 수습하고 말면 될 것이고, 참사라고 보면 그걸 현장으로 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건데, 반면에 사건이라고 본다면 이견 사실 어떤 언어화나 개념화로도 담아내기 어려운, 흘러넘치는 게 너무 많지만 그걸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 이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례는 이게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방향을 그려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사고나 참사보다는 사건 프레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건 프레임

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언어화될 수 없는 건 학술적인 논의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린 인류학자니까, 이 문제를 인류학적으로 논의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에 대해 선행연구를 더듬어 보면, Situational analysis라든가 Social drama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인류학의 선행 작업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더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정토론자로서의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도정: 어떻게 글을 구성할 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따로 떨어져 있던 면들이 많아서 그걸 하나로 잘 정리하진 못한 거 같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도 이 글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하여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저도 사실 글의 흐름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깔끔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행 연구 앞으로 빼고, 다크 투어리즘 개념도 저는 사실 여러 개념이 있어서 몇 개만 소개를 했는데, 국내 상황과 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세월호 인양 이슈도 마감시간에 쫓겨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는데 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목: Social drama나 critical event 같은 논의들도 고려했었는데, 제 잠정적 판단은 이걸 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걸 쓸 수 없는가에 대해 수정할 때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벌어진 세월호를 사건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기존의 다른 학자들 개념을 다 압도해 버려서 그걸 여기 쓰는 경우 다른 걸 다 밀어내버리는 결과가 생겨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critical event라고 한다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전과 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파키스탄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억지로 애를 낳고 살다가 나중에 국가 간의 거래를 통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 있어 critical event인데, 세월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질문은 그 점에서 왜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해 던져야 할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쓸 수는 없었고, Social drama도 마찬가지로인데, 분리되어서 갈등이 생기고 그걸 통합하려는 시도가 등장하고 나중에 재통합된다는 개념인데, 세월호의 경우는 재통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또 세월호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들을 써서는 안 될 거 같다는 거였어요. 분위기는 비슷하게 낼 수 있을지언정, 부분은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전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들은 원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건 개념은 사실 바디우의 사건 개념에 제일 가까운데, 이걸 또 바디우를 갖다 쓸 수는 없거든요. 논의 자체가 다른 거라서 말이죠. 제가 바디우의 논리나 논의방식을 갖다 쓴 건 없는데, 제가 영감을 받은 건 바디우의 사건 개념입니다.

## 2. 종합토론

정헌목: 지정토론과 발표자 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 얼마 전 『눈먼 자들의 국가』를 읽었는데 거기서 박민규씨의 글이 세월호가 어떻게 임혀져야 하는지 쟁점을 잘 짚어냈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회자되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황정은씨의 관점이 인류학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획특집에서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 제가 갖는 바람은 세월호를 사건으로 본다거나 사고로 본다거나 하는, 어떤 입장을 갖고 글을 쓰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호를 사건이든, 사고든, 참사든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세월호 문제에 접속하는 지점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분들도 그 다양한 지점들을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심사를 막 앞두고 있기에, 세월호를 다루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속해야 할지 몰라서 미뤄뒀던 면이 있어요. 제가 만약 세월호에 대해 쓴다면 저의 상황에서부터 쓰기 시작할 거 같은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글은 여러 층위에서 세월호에 접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인류학적 이론을 통해서 접속을 할 것이냐 접근한 분도 있었고, 혹은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해야 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속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한 분도 있었고, 또 관광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세월호에 접속했을 때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이번 기획특집이 지향하는 바가 꼭 어떤 아카데미적이고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글만을 신는다고보다는 기존 프레임에서는 담아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니까, 꼭 논리적으로 선행연구의 적합성에 대해 접근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접속하는 지점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를테면 (노년을 연구하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번 재·보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노인들이 세월호를 바라보는 입장, 그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6·25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데 이거 갖고 몇 년을 끌고 있는 거냐고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노인들도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 식으로 굳이 학문적 언어로 포장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입장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점에서 저는 특히 이도정씨의 글이 현장감이 살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기획특집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경묵선배의 글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서 접속하는 지점들이 더 궁금해지고, 그런 식으로 각자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정헌목: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진행중인 연구와 관련하여 세월호와 접속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경제 살리기라는 틀로 덮으려고 하잖아요? 제 필드에서 드러나는 건 경제적인 가치 높이기가 집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엮이면서 그 사고를 경제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덮어버리는가에 관한 거라면, 세

월호의 경우도 경제 살리기라는 틀이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덮어버리려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류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접속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세 분도 그 점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논의로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이길호: 저는 이경목 선배께서 사건의 인류학에 관해 첨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여러 프레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굳이 '세월호의 인류학'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여기서 '세월호'라는 건 어떤 사고, 참사에 대해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지시어라기보다는 하나의 고유명일 겁니다. 그럼 '세월호의 인류학', 즉 고유명의 인류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프레임에 따른 대상 규정에서 특정 사고나 참사, 또는 대중적 의미의 사건에 대해 기술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중요한 건 필드를 잡아야 한다는 거고 그게 오늘 이 자리의 주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고나 사건이나 이런 구분 자체는 연구자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논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세월호라는 고유명이 지시하는 건 없고, 그 없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필드는 사고가 발생한 진도의 팽목항 등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세월호의 인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천가능한가에 대해 부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현정: 저도 현장이라는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고, 사건, 참사와 같은 용어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현장이라는 용어를 붙여보면 사고현장이라는 말도 있고 사건현장이라는 말도 있고 참사현장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말들을 쓰면 아주 불가능한 조합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현장이라는 걸 어떻게 사고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목: 이길호씨의 질문은 사실 이길호씨와 제가 바디우 책을 최근에 함께 공부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바디우의 사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면이 있습니다. 고유명은 철학에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를테면 "이경목은 몇 살짜리 남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해소해도 '이경목'이라는 건 남는 거니까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거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맥락이나 배경을 다 설명하고도 그때 그 자리에 질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니까, 그 이전의 조건들을 나열한다고 해도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자체가 뭐라고 지칭하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하신 걸 인용하면 사고현장, 참사현장, 사건현장이라고 하면 사건현장이라는 게 가장 추상적인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건의 현장이라는 건 상상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제 머릿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자카르타와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 그 사람이 지식이 정확하냐의 의미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최초로 접했던 세월호의 영상과, 뉴스를 들었을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인도네시아는 못 사는 나라라는 프레임 안에서 설명이 안 맞으니까 자기 멋대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게 연결이 되었다고 본다는 거죠. 제가 아

무리 얘기해도 저는 당시 한국에 없었다는 이유로 설명의 권위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인류학자들이 세월호라는 현장을 전통적인 현장으로 가정했을 때 권위가 서지 않는 것과 비슷한 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는 공동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추적하다 보면 정부도 그렇고 매스컴이 하는 짓도 그렇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사고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 노력이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최초의 설명불가능성일 것이고, 어떻게든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세월호라는 현장을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 동력이 아니냐, 그게 제 감정적인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맨 마지막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민영씨 발표와도 묘하게 만나는 지점인데, 세월호를 인양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걸 구조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프레임은 인양하고 나면 사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인양 이야기를 1주기에 맞춰서 꺼낸 거죠. 이걸로 끝내자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국가를 통한 개입이라는 건 사실 사이버 인과관계일 수 있습니다. 희생자가 세월호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뭘 내세워야 하는데, 실제로 저 쪽에서 그걸 들어줬을 때 “자, 너네가 몇 개월 전에 했던 얘기를 들어줬으니 이제 끝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듣는 순간 이걸로 끝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잡으려고 하면 또 빠져나가고, 다시 잡으려고 하면 또 다시 빠져나가는 그 연속? 그 힘? 그런 것들이 사건으로서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우병 때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세월호 문제는 훨씬 더 어렵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싫었어요. 세월호 하면 아직도 재난시스템을 제대로 못 바꿨다, 해경도 예전이랑 똑같다, 보상을 뭐 더 많이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튕겨내게 만드는 태초의 거부, 투항할 수 없게 만드는 자리가 뭐냐는 거고, 그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참사가 일어났을 때의 그 순간 말고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와 반응,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그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일중: 저는 이민영씨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을 한국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그건 좀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건, 사고, 참사 모두 적절하게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현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현장은 도대체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세월호에 어쩌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죽음이라는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 싶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작년 7월에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말레이시아로 가다 사고가 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국가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그럴 수 있는 문제인데 네덜란드에서는 안으로 달아버리는 방식이 있는 거 같아요. 반면에 우리 사회는 역시 죽음을 갖고, 죽음과 관련한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죽음 과잉이거든요. 저도 사실 논문을 제사 의례와 관련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한국사회에

서는 사람들이 그동안 조선시대를 거쳐 오면서 죽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 존재의 타당성, 인정받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소비해 왔던 구조 안에서 이런 어떤 사건을 논의할 때 역사적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세월호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게 사건으로서 계속 이어져가고, 통합시키려는 시도도 잘 되지 않고, 현장도 사실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는 걸 통해서 사회 내에서 의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문제를 자꾸만 국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방식으로 나가는 건 아닐까도 싶습니다. 물론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엄청난 갈등 구조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같은 문제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4·3이라든가 6·25라든가, 일제시기의 많은 죽음들, 그런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세월호라는 것이야말로 과거적인 죽음의 처리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죽음은 특정한 집안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겠지만 그건 당사자들이 녹여내는 문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공공적인 죽음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과잉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노인들을 주로 인터뷰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한국사회에서 과거에 죽음을 해소하는 방식과 결별하는 식의 논의가 불거지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재성: 저는 이경목 선배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가 사고인가 사건인가 규정할 때, 사건은 누군가가 행한 범죄행위이고, 사고는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니까 세월호는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배 말씀에서 사건은 제가 생각하던 의미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선배는 사건이라는 것이 시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월호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인들이 중첩되어 있고, 또 다른 것들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일이기 때문에 사건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배가 사용하신 사건 개념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어디까지를 진상규명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진상규명은 어떠한 사건의 시초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월호는 더 이상 사건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요?

홍철기: 저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건이라는 말을 쓰실 때 사태 자체가 워낙 커서 설명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기존의 뭔가가 그걸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건이라는 개념을 쓰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진상규명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되었다면, 그를 통해 사건이 사고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그건 끝까지 이뤄지지 않을 거고 그게 어떤 사건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디우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보면, 이게 사실 사건이라는 건 창조적인 면이 있거든



요. 단순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내 옆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거기에 내가 압도되는 걸 뜻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겪으셨던 일이 흥미로운 게, 기존에 설명하려는 두 개의 대립항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사건이라고 본다면 인도네시아에서 겪으신 일이 오히려 저희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TV로 봤던 그 장면을 다르게 보게 해 주거든요. 물론 그때의 느낌도 그렇고요. 배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잘 보여주는데 아무도 못 구하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뭐냐에 대한 부조리가 느껴지는 건데,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장면은 그 부조리함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압도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설명에서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작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부딪침,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경목: 정확한 지적입니다. 앞에서의 제 설명이 마치 불가지론처럼 흘러갔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이 뜬금없이 자카르타 얘기를 글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배치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명이라는 건 납득이죠. 그래서 사건과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상규명이 잘 된다면, social drama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강재성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을 했을 때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알아내야 할 것인가의 질문이 남습니다. 진상이란 비어버린 몇 분의 항적기록 같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진상규명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몇 가지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진상규명이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주장 뿐 아니라,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특별법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미 최소한의 신뢰가 없고, 국가가 제시하는 자료와 진상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의 팩트를 찾아낸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중립적인 언어로 진상규명이라는 단어를 유가족도, 국가도 쓸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그게 드러나면 그건 또 아니라고 도망가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걸 단순한 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의 문제인데.. 아까 심일중씨가 말레이시아 항공 얘기도 하셨지만, 그 사고와 세월호가 재현되고 논의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모든 죽음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서 오는 부담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최초로 균열이 있었고, 그 균열이 누구에게 명확하게 보이고, 심지어 자카르타의 그 아저씨한테도 보였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말도 안 되지만, 또 자세히 보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정을 한다면, 그걸 좀 드러내서 쓰고 싶습니다. 사건 부분은 바디우를 되도록 안 쓰고 싶어요.

이길호: 사건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더 하면, 이게 당연히 불가지론으로 흘러가버리면 안 되겠죠. 세월호가 왜 사건이냐고 했을 때 “이건 사건이다”라는 정의 자체가 세월호 사건을 정의해 버리는 순환논리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그런 논리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디우가 사건 개념에

관해 말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현장이라는 것을 규정할 때 만약에 세월호가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애초에 그건 세월호를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 현장이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 이민영 씨 발표하신 내용에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언표가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정작 이도정씨가 발표한 진도의 사례에서는 “우리는 잊고 싶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진술 속에서 진도 팽목항은 단순히 세월호의 사고 현장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 새로운 상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더라도 이미 도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까 저는 사실 심일종 씨께서 얘기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과잉이다 하셨는데, 과잉이니까 사건인 거겠죠. 이게 과잉이 아니었고, 만약 진상규명을 통해 설명의 앞뒤가 맞았다면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넘쳐흐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월호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뭔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세월호 이후의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던 간에, 심지어 그 연구자가 자카르타에 있던, 저 같은 경우 인터넷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데 아직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럼에도 그걸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엇이죠. 세월호에 대해서 국가가 실패했다 어쩌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라는 사건 이후에, 만약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연결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잘 드러내주는 게 이도정씨 글 같습니다. 진도라는 공간에서 오히려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걸 확장시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라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자카르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현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zone이라기보다 더 확장될 수 있겠죠. 물론 그걸 규정하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겠지만.

김태경: 정치학도 입장에서 저는 세월호 하면 중복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주류 언론에 의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중복주의자 중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치학과에서 다루는 방식을 보면, 요새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야당이 이겨야 되는데 야당이 지잖아요? 왜 그러냐를 알고 싶은 거죠. 선거 관련 조사를 해보면, 진보냐 보수냐 할 것 없이 세월호 관련해서는 너무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이 보수 쪽에선 표 깎아먹는 쪽으로는 안 가고 진보 측에서는 표를 깎아먹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야권에 대한 신뢰도가 깎이다 보니까 아예 선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세월호에 접속하는 다양한 지점들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 프레임을 덧씌우는 사람들이 접속할 거 같거든요.

정헌목: 사실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학계의 사람들, 우리가 SNS에서 접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에 대해 중복이라는,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순간이 바

로 세월호라는 사건이 었나가버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야권은 세월호에 대한 애도를 지속하는 게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뜻하는 걸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버리니까, 야권이 선거에서 질 때마다 “한국사회는 세월호에 대해 잊고자 한다”라고 하는 담론이 보수언론을 통해 계속 재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애도가 그런 이상한 프레임으로 규정되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민영: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해서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선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자면 다크 투어리즘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 지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게 ‘역사 교훈 관광’이네요. 그런데 이걸 관광학자들이 다 싫어했어요. ‘다크’라는 게 죽음이나 재난이 핵심인데, 왜 역사에서 교훈을 얻느냐의 문제로 축소를 시켜버리려는 거죠. 그래서 관광학자들이 다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사고 프레임으로 죽음 자체를 본다면 그냥 다크 투어리즘, black spot 이렇게 맞겠고, 참사 프레임으로 보면 국립국어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목: 저도 사실 아까 발표 들으면서 이민영씨께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잘 그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용어의 문제인 거 같은데, 이게 과연 투어리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걸 투어리즘보다는 순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순례도 어떤 점에서는 투어리즘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맞겠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민영: 그런데 관광이 순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순례지화 이렇게 말하지는 안잖아요. 순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죠. 관광지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지은숙: 앞에서 얘기한 사건이라는 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 프레임을 가지고 현장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걸 발전시킬 수 있게 현장이라는 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죠. 그에 대해 아까 이길호씨가 얘기했을 때 인터넷이라는 연구 영역에서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을 뭔지 모르지만 달라진다는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가요?

이길호: 그렇죠. 세월호에 대한 담론은 인터넷에서 엄청 많죠. 저는 일베를 연구하지는 않지만 일베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세월호 담론에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외에도 이 사건 이후에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눈치 챌 수 없을 정도기 때문에 아직 뭐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요. 사건에 관해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사건 이후의 상황에 관해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니깐요. 이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비교평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각자의 현장에서 차이의 지점이 발생하고, 그런 점에서 세월호의 인류학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도정: 사실 사고와 사건의 문제에서 저는 애매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있었던 마을과 제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간극은 있었던 거 같거든요. 제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제가 가장 고생한 건 세월호에 대한 게 아니라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좌우 갈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저한테 좌익 활동을 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서울대 학생이라고 사칭을 하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소문이 마을 한편에서 있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말입니다. 제가 마을 안에 있었을 때 세월호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과, 좌익 우익이라는 민감성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안에서 저는 그걸 전혀 살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고민하고 그러긴 했지만 죽음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과거에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 덮여 있어요. 제가 그걸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존재하는 지역 안에서 세월호 사고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과연 거대한 사건으로까지 인식되는 것인지 여전히 저한테는 의문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고에 좀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이고, 한국사회에 거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분들 안에서는 그 자체가 크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죽음에 대한 민감성 차이인가, 무엇에 대한 차이가 이걸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아직 이걸 글로 만들어내진 못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건과 사고라는 경계에 대해 세월호를 갖고 논의해보는다면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희경: 민감성이라 하셨는데,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기억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일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를 보고 광주 5·18을 떠올리고, 저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를 떠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노인분들은 6·25를 떠올리고 그 6·25에 비해서 이진 사고일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 같아요. 그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경목: 그래서 이러한 토론이, 사건, 사고, 참사 중 어떤 프레임을 쓰느냐를 선택해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관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각각의 용어를 써서 다른 것을 칭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게 사고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무능할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어요. 보통 무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무능하냐, 그렇다면 구조하지 못했다는 말이 그 안에서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될 겁니다. 발표 중에선 쓰지 않았지만 본문에서는 의미연관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서로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것 자체, 그 자체를 통틀어서 말하고자 했고, 그것이 사건이 계속 사건으로 남는 모양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이라고 인식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라는 프레임, 참사라는 프레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분석의 용어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황은 없죠. 그건 좀 조심을 해야 할 거 같고, 그러니까 택일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강재성: 그렇다면 선배께서 사고라는 프레임, 참사라는 프레임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세월호는 사건이라고 하신 거라면, '세월호의 인류학'에서 현장은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님 말씀대로면 세월호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서는 이게 사고인지 참사인지 프레임조차도 안 잡혀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세월호라는 현장은 어디인가?” 같은 질문은 던질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경목: 말씀하신 걸 듣고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현장은 사고나 참사라는 프레임이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자리들? 연결들?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숙: 유가족들이 낸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거기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나는 버그들이 있어요. 동네 슈퍼를 가다가 어디를 가다가 뭔가 어디에 가든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이웃들 간의 관계가 헝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엄마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 안 가고 멀리 있는 교회로 가고, 슈퍼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저 멀리까지 가고,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잡음이나 버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월호에 대해 말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할 때 완성된 현장을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거 같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몽개버리지 않고 잘 살펴보면, 말하지 못한 것들을 담아내는 방식의 인류학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걸 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답습해 온 방식으로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인류학에 중요한 도전이고, 잘 넘어서면 뭔가 인류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현목: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라는 현장, 혹은 인류학에 대해서, 혹은 사건이나 사고와 같은 몇 개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논의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완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 말씀처럼 그렇게 모아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 일의 본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후 발간될 기획특집의 원고들을 통해 더 정제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바쁘신 와중에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